

‘한국어 ‘에서’ 주어에 대한 연구’에 대한 토론문

오민석(상명대)

해당 발표문은 ‘에서’ 주어를 다룬 선행 논의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전 ‘에서’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‘에서’ 주어의 유정성 획득 과정을 비유적 개념화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. 해당 발표문을 통해 ‘에서’ 주어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다만 ‘에서’ 주어에 대한 발표문의 논의를 따라가기에 바빴던 토론자로서는 읽으면서 가진 궁금함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.

1. ‘에서’ 주어는 적지 않은 예문에서 ‘에서-보조사’ 구성으로 나타납니다. 그리고 해당 예문에서 보조사를 삭제하면 그 의미나 적격성 판단이 보조사가 결합한 문장과는 다른 듯합니다. 그리고 이는 (11)의 일부 예들이 보조사가 결합한다면 적격성 판단이 달라지는데, 이는 피동문/피행위주 제약과는 무관해 보입니다.

(5) 가. {선수단에서는, 선수단에서} 이번 일이 흡족한가 봐.

나. {우리 정부에서는, ?우리 정부에서} 북측의 제안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.

다. 이제는 {여당에서도, 여당에서} 서서히 여론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.

라. 산전수전 다 겪은 {우리팀에서도, ?우리팀에서} 실패는 여전히 무서웠다.

마. {검찰에서도, ?검찰에서} 그를 구속 수사하는 것이 껄끄럽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.

바. {회사에서도, 회사에서} 그런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.

사. {우리 쪽에서는, ?우리 쪽에서} 우리를 간섭하던 그가 알미웠지만 싫지만은 않았다.

(11) 가. *그 사건으로 인해 각 봉사 단체에서{는, 만, 도, ...} 점점 와해되고 있다.

나. 우리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...

다. 계속 그런 행동을 하니 그쪽에서도 계속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잖아요.

라. 사고 대책반에서는 이쪽에도 배치될 것 같습니다.

보조사 결합 여부에 따라 ‘에서’ 주어의 의미, 적격성 판단이 달라지는 데 대해 발표자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여쭙습니다.

2. 발표문에서는 ‘에서’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주 외에도 경험주, 피행위주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였으나, 이 중 피행위주의 안정성이 다른 의미역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. 그럼에도 ‘에서’ 주어가 피행위주의 의미역을 취하는 배경으로 목적어 있는 피동문을 들었습니다. 이 논의를 따르면 (10가)는 ‘우리한테 일을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 않다’ 정도가 가능할 것 같지만, (10나)는 소환되다의 목적어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(11)과 달리 (10)이 적절한 문장이라면 (10나)에 대한 추가 설명이 주어져야 할 듯합니다.

3. 논의를 따라가면서 주장이나 예문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없음이 중간중간 아쉬웠습니다. 3.1.에서는 환유를 통한 유정성 획득 과정을 다루며 생산자를 통해 생산품을 나타내는 예(22)와 함께 생산품을 통해

생산자를 지시하는 환유(?‘피카소의 작품→피카소’) 역시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 3.2. (19-21)에서 논의한 ‘에서’ 주어가 유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.2.에서는 ‘사람이 어떠한 행위의 출처를 그 사건의 행위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은 2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’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는 2장에서 김현주(2015), 김민국(2017)의 논의를 언급한 부분을 말하는 듯합니다. 그런데 2장의 해당 부분은 선행연구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음을 단순히 ‘언급’한 것입니다. 해당 부분 역시 구체적인 예가 주어진다면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.